갱신 내지 쫑5 2010.5.11 2:11 PM 페이지 63

주 도 홍 | 백석대학교

그리스도인과 통일: 독일통일로 살펴 본 한국교회의 통일론

1. 독일통일 20년

1989년, 1990년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을 독일통일의 중요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이해한다. 정확하게는 1990년 10월 3일, 40여년의 동서독의 분단을 끝내고 동독이 서독에 병합된 사건을 독일 통일의 역사적 시점, 곧 통일의 날로 공식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동서를 가로 막고 있던 무거운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정치 조직의 완전한 와해가 이루어진 1989년 11월 9일을 독일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Wende)으로 생각할 때, 2009년은 실질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룩한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 현장에서는 아직 그러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 것 같다. 법적,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2010년을 독일 통일 20주년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2009년 11월 9일은 그 역사적 "전환"의 20주년으로 실질적 통일의 날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짚을 수 있기에, 11월이 오면 통일독일에서는 분명 그 역사적 기쁨과 흥분, 감동을 되새기려는 축제적 분위기를 그 어두운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현장을 중심으로 넉넉히 감지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2. 내면의 통일(Innere Einheit)은?

통일 20주년을 바라보며 현재 통일독일은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땅, 정치적 통일은 통일의 시작, 통일의 첫 단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분단의 세월만큼 사상과 문화, 언어의 분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갑작스런 통일과 더불어 어떻게 이루어진 통일을 이루어가고 가꾸기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에 상당한 통합화의 시간이 요구됨될 것으로 예측한다. 두 개의 독일로 나누어진 분단의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통일을 전후로 하여 소위 일컫는 "머리속의 장벽"(Mauer in den Koepfen)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소위 일컫는 "동-서-생각"(Ost-West-Denken)이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서부로 이주한 동부의 사람들에게는 본토인인 서부 사람보다 상대적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여기서 나오는 차별감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다. 문화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채 차라리 옛 동독 사회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 "오스탤지어"(Ostalgie)가 생겨나게 되었다. 분단 시대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되던 우편번호, 전화번호도 통일 후 단점을 보완해 조심스럽게 하나로 만드는 일을 통일독일은 시도해야만 했다. 자동차 번호판, 도시 이름도 새롭게 정비해야만 했는데, '칼 마르크스 시'(Karl Marx Stadt)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1990년 4월부터 예전 이름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독일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oehler)는 통일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잔존하게 될 동서간의 경제적 차이를 보면서 "진정한 하나 됨의 느낌"(ein echtes Zusammengehörigkeitsgefühl)을 소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나누어진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되어 우

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될 때, 아니 더 이상 다른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만이 진정으로 통일이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 하나 됨의 느낌, 언제부터?

"통일로 인한 전환의 순간에 서서 동독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자아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환의 순간을 맞이한 첫 자동차들이 모든 길거리에 빽빽이 늘어선 접경지대에서 느낀 것은 한 마디로 항복 그 자체였습니다. 믿었던 땅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고, 나 역시 함께 몰락하는 기분이었고, 이 가라앉는 기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도홍, 『통일. 그 이후』, 서울: IVP, 2006, 52)"

위의 글은 동독의 서독에로의 합병 직후 동독의 지식인이 느낀 점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 엘리트들의 현상이다. 문제는 통일과 함께 그 "진정한 하나 됨의 느낌"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이다. 말할 것도 없이 독일처럼 여러 면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마땅히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의 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 전 먼저 앞당겨 그 "진정한 하나 됨의 느낌"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전은 앞당겨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만약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일을 꿈꾸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앞당겨 그 통일을 준비하게 되

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하나 됨의 느낌"을 갖게 된다. 문제는 그 "진정한 하나 됨의 느낌"을 위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법의 통일, 땅의 통일이 되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지 그 날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기에 통일의 업무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고 통일 이후 통합화의 일에 있어서도 보다 능률적이게 된다. 사실 동서독은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되었고, 친척 간에 교류가 있었으며,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베를린을 오고가는 고속도로를 전적으로 서독의 경비로 만들어 동서독의 통일 맛보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물론 필자가 제안한 부족한 통일론 "이미의 통일론"이 어느 정도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주도홍, 『통일. 그 이후』, 157-68). '아직' 분단의 휴전선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냉전의 차가운 바람을 막을 길이 없고, 종종 전쟁의 살바람이 남북의 휴전선에 세차게 불기도 하지만, 만약 한국의 교회가 진정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가난과 아픔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참하게 될 때, 그리고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자로 한국교회가 북한에게 다가가게 될 때, 한국의 교회는 '이미의 통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둘 사이에 미움과 불신이 사라지고, 작은 부분부터 서로를 조금씩 신뢰하고 이해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분열을 거둬내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하나 됨의 느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땅은 정치적 분단아래 놓여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따름을 이룰 때 앞당겨 맛보게 되는 통일을 '이미'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 사실 휴전선이 우리를 분단으로 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경과 국토를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해 넘나드는

갱신 내지 쫑5 2010.5.11 2:11 PM 페이지 67

21세기 글로벌 우주시대에 정녕 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녹슨 휴전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면 차라리 지구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도 죽음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추구하며 세계의 복음화를 외치는 자로서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과연 예수의 사람들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4. 한국교회에로의 적용

이제 독일교회의 통일전후의 역사를 이해하며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을 찾으려 한다. 충분히 독일교회의 통일을 향한 역사를 다 정리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분단 한국의 상황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요청을 기술할 것이다. 물론 독일교회가 직접적으로 주는 교훈으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러한 통일독일 바라보며 필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나름대로의 통일관을 한국교회를 염두에 두며 정리하려 한다. 일종의 성경적 통일신학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를 향한 성경적 관점 또는 기독교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적용으로 이해하길 기대한다.

1) 이념을 치유하는 복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이념으로 발목 잡혀있다(주도홍, 『통일. 그 이후』, 13)." 한국기독교는 일제시대, 한국전쟁, 남북분단을 어렵고 힘들게 넘어서면서 조금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고난의 신학을 은연중에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시대를 살아오면서 겪은 이념으로 인한 깊은 상처는 마치 복음이 이념을 대치하여 존재하는 상대적 진리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의 적은 기독교이며, 기독교 역시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공산주의가 먼저 기독교를 반동으로 여겨 척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들의 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역시 적그리스도로 여기며 그들과 싸울 것을 마음에 굳게 다짐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주님 사랑의 대상으로 품은 것이다. 자신을 죽였던 원수들을 역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한국교회가 공산주의 북한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지 못하는 가난과 무지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을 오랜 인내로 기다릴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념을 대적하여 북한을 원수 삼아 쳐부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이념을 치유하고 바로 이끄는 진리여야 한다. 인간의 이념을 대적한 또 하나의 상대적 진리가 아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그들의 한계를 알고 있다. 물론 끝까지 착각을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교

회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북한을 향한 태도는 복음적 음성을 따라 그들을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서야 할 뿐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이념을 치유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념을 대적하여 싸우는 진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 후 무신론적 공산주의자와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지 못한 채 평화를 깨뜨릴 뿐 아니라, 통일한국에서의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사람들이 품지 못할 사람들이 없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원수 사랑이기 때문이다.

2) 개성공단은 통일모판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의 노동자의 월급을 300불로, 공단 토지임대료 5억불을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무엇보다도 통일의 모종을 가꾸는 통일모판이 되어야 한다. 그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경영적 측면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할 순 없겠지만, 정부는 통일비전으로 멀리 바라보며 개성공단을 잘 가꾸어가야 한다.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임금인상과 토지임대료 문제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협상할 때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을 그저 도울 땐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북한 쪽에서 볼 때도 명목 없는 도움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비용으로 생각하여 한국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하여 개성공단의 미래를 꿈과 더불어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 함께 살 북한인과의 접

촉점을 모색하고 미리 앞당겨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는 통일의 실습지로 분명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모판, 교류의 첫 단추로서 지혜를 발휘하면 제2의 개성공단 제3의 개성공단으로 나아가서 어느 순간 함께 일하며 함께 사는 통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임금인상과 토지임대료를 원하는 대로 다 지불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합의하에 협의가 이뤄지면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지어주고 그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제 동물(economic animal)식의 발상은 통일한국을 내다보는 자세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 실용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엄밀히 생각하여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소유한 복음에 입각한 인물들이 한반도에 나타나되, 한국의 기독교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 한국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빵만으로 살 수 있다고 외치며 일어섰던 이념이 사회주의라고 할 때 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에 각성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도 쉽게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좋은 성적을 내면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하는 부모, 아니면 먼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인내로 교육한 후 그 대가로 좋은 자식농사를 거두어들이는 부모가 있다.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지혜의 차이일 뿐이다. 북한을 향한 한국교회의 자세도 이념이나, 진보나 보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위에 확고히 서서 주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순종의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 대북 NGO

싸늘한 냉전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 대북 NGO를 통한 실천이 바람직하다. 정권과 이권, 이념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는 기독교 대북 NGO들이어야 한다. 물론 국민이 뽑는 정부를 존경하고 신뢰하되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알아, 북한을 돕는 기독교 NGO들은 오직 성경의 교본(text)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성경철학을 가져야 한다. 정치의 흐름에 부화뇌동하는 NGO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놀음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만약 기독교 대북 NGO들이 확실하다면 분명한 성경적 신념이나 원리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한반도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기독교 대북 NGO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신을 갖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파도치는 정치와 함께 늘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세상과 권력, 정치가들을 설득하고, 길이 막힐 땐 인도하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첫 출발부터 바르고 신실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의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이 근본이 되어 기독교 대북 NGO들이 세워지고 담대하게 일하게 될 때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남북 간에 찾아와도 중단 없이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느 순간 기독교 NGO들을 상대방도 신뢰하게 되고 본래적 NGO의 역할을 순수하게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NGO들이 활동할 때 특히 북한을 도울 때 보다 순수한 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선교를 위해 북한을 돕는 것도 엄격하게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향한 사역도 엄밀히

볼 때 조건이 없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을 뿐이다. 병든 자에게는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며 고난에서 벗어나게, 병든 몸에서 치료를 받게 하셨다.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위대했고 놀라왔다. 그 어떤 대가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 한국교회의 NGO 활동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10명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고마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은 열매일 뿐이지 우리의 사랑의 대가로 강요할 수는 없다. 사랑이 그 무엇을 대가로 실행될 때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아니 루터의 말대로 치사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기독교대북 NGO들도 분명 이러한 사랑의 철학, 섬김의 신학을 분명히 한 후 행동에 나설 때 세상은 한국교회의 사랑에 감동을 받을 것이고, 어느 순간은 한국교회를 향해 호감을 발휘하며 복음의 음성을 그리워할 것임을 믿는다. 그럼에도 '북한선교' 라는 말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조금은 조건적이기에 심사숙고를 요한다.

4) 교회의 사회적 역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허수아비이며, 그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한다. 마치 또 다른 공해라고 치부하기에 이른다.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가 '개독교' 로 욕을 먹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신학자로서 필자도 그런 생각을 한다. 신학자의 머리에서만 감도는 신학은 의미가 없다. 그 신학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예배당에 갇힌 한국교회는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초대교회는 교회 밖의 사

람들이(outsider) 교회 안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보며 칭찬했고, 그 비결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호감으로 궁금했다. 콘텍스트(Context) 없는 텍스트(Text)만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신학자의 머리에서 또는 신학자의 서재에서 만들어진 비적용적, 비능률적이며 삶이 없는 이론 신학만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요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도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의 세상을 향한 의무와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과도 이는 맥을 같이 한다. 사실 우리의 십자가로 존재하는 남북의 분단 휴전선은 정치의 일, 세상의 일, 이념의 일, 정치가의 일만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가만히 그 정체를 들여다보면 남북의 분단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에서 그 어느 나라도 한국교회만큼 역동적이고 비전을 소유한 교회가 없다. 사실 세계선교의 2대 강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남북의 분단은 한국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간다. 먼저는 비행기를 타야만 가는 선교로 많은 경비를 감당해야 하고,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대치는 북방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기 원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그 부끄러움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가 남북의 분단을 기도의 제목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채 사랑을 외치고, 세계 선교를 외침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를 복음화하면서 정치와 교회는 섞여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동역자로 간주하여 긴밀한 파트너로 활동했던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는 일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역임을 한국교회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복음화가 매우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더욱 그렇다.

5. 일곱가지 원칙

끝으로 일곱 가지 원칙을 확립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곧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한다.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비전의 한국교회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하겠다. 첫째, 성경적 원리를 확립하라. 둘째, 존경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라. 셋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라. 넷째,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서라. 다섯째, 정치를 이끄는 교회가 되라. 여섯째, 통일을 앞당겨 맛보라. 일곱째,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라.

독일교회의 통일을 위한 역할은 사실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조용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독일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단된 사회로 하나로 바꾸는 말 그대로 "조용한 개신교 혁명"으로 이끌었다. 이는 교회의 진정한 복음적 실천이 세상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저 예배당에 갇힌 교회일 때는 전혀 예수님께서 요청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일종의 광신과 맹신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청하신 사랑을 겸허히 실천하는 교회일 때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영광의 교회로 드러나게 된다. 독일교회가 분단 시절 형제사랑을 묵묵히 인내로써 실천할 때 결국은 독일 정부도 기대하지 않았던 통일의 원동력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 진정한 신앙은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역사

갱신 내지 쫑5 2010.5.11 2:11 PM 페이지 75

를 통해 증명됨이 한 둘이 아니다. 바른 신앙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드러나게 되어있다. 그 등불을 켜서 캄캄한 말 속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주님은 탓하였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에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마땅히 점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회는 정부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렇지만, 좋은 파트너가 될 때(칼빈) 나름대로 기대 이상 거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통일에 있어서 독일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 냉전의 시대의 현장 한반도에서 한국교회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제는 이념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복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고 행동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십자가 북한을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로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의 길이 막힐 때 복음의 길이 열려 남북을 만남의 현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하게 성경의 음성을 들어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여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파당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 교회 안에 여야 국회의원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요구된다. 분단의 남북에서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 한국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글을 마감한다.